

E1 여천기지 무재해 15배수 달성

연평균 작업시간의 15배 기간 산업재해 없어 ... 모범직원 포상 실시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공급기업인 E1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인증하는 무재해 15배수 기록을 달성했다고 9월7일 발표했다.

무재해 15배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정한 연평균 작업시간의 15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E1은 1984년 3월 여수기지 상업운전과 동시에 무재해 운동을 개시해 무재해 동탑, 은탑, 금탑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1999년 8월에는 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을 노동부로부터 획득했다.

2000년 12월에는 LPG 공급기업 최초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영국 로이드로부터 안전보건경영인증(KGS/OHSAS 18001)을 획득했으며, 2004년 6월에는 제11회 가스안전축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E1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시설 정밀안전진단 외에도 실물화재훈련, 안전관찰제도(STOP)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과 정기적인 이사회 보고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왔다.

E1은 9월7일 여수기지에서 구자용 사장 등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15배수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모범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구자용 사장은 기념식에서 “무재해 사업장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화학저널 2005/09/08>